

검찰, 장윤기에 ‘법정 최고형’ 사형 구형

“140초 만에 고교생 2명 상대 범행”
스토킹·성범죄 재범 위험성도 높아
장윤기 “피해자들과 유가족에 사죄”
재판부, 오는 9월30일 1심 선고공판

검찰이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납치하려다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3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윤기에 대한 1심 4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검찰은 기존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던 케이בל타이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했다.

검찰은 장윤기 차량에서 길이 40cm, 폭 48mm의 케이בל타이 2개가 발견된 것과 관련해 해당 케이בל타이가 사람의 손발을 묶기에 충분한 규격인 점, 포장 봉투에서 장윤기의 DNA가 검출된 점 등을 근거로 성범죄 목적의 납치를 위해 미리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1심 4차공판이 열리는 31일 광주지방법원에서 고(故) 이채원 양 부모와 변호인이 엄벌 탄원서를 들고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김예리 기자

준비한 도구라고 주장했다.

이에 장윤기 측은 공소장 변경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케이בל타이는 약 5개월 전 컴퓨터 선을 정리하려고 구입한 것으로,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마련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 사건도 본안 사건에 병합됐다. 검찰은 장윤기가 성범죄와 살인 범죄를 반복해 저지른 점과 재범 위험성을 들어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후 2시19분께 피해자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추가 증거조사와 피고인 신문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재판은 오후 5시14분께 다시 공개됐다.

검찰은 장윤기의 범행이 사전에 준비됐고 수법이 잔혹한 데다 재범 위험성도 높으며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장윤기가 피해 여학생을 발견한 뒤 약 15분간 차량으로 미행하고 예상 이동 경로에 먼저 도착해 기다린 점을 계획 범죄의 근거로 들었다.

피해자가 오기 전 차량 뒷좌석 내부를 정리한 후 문을 열어둔 정황도 범행 준비 과정이라고 봤다.

범행 이후 세탁방에서 피 묻은 옷을 세탁하고 미용실에서 머리를 손질한 뒤, 앞서 성폭행한 피해 외국인 여성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검색하고 그가 일하던 식당을 다시 찾아간 점도 지적했다. 검거되지 않았다면 추가 범행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실제 장씨는 스톱킹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심각’,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에서는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희 광주지검 형사3부장은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었던 피해 여학생은 범죄를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일상의 공간에서 목숨을 잃었다”며

“피고인이 피해 여학생에게 접근해 범행을 저지르고, 이를 목격한 남학생까지 살해하려 한 뒤 현장을 벗어나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140초였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불과 이틀 동안 피해자 3명을 상대로 강간 등 상해와 살인예비, 강간 등 살인, 살인미수 범행을 잇달아 저질렀다”며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윤기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자신의 범행과 인생 전반을 되돌아보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범행을 저지를 당시 반개탄을 구매하는 등 이미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해 더더욱 극단적인 심리상태에 놓였던 사정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윤기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분들과 유가족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사죄드립니다”며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죄를 지었고 한 가정에 지워지지 않는 큰 상처를 남겼다. 평생 쇠값을 안고 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9월30일 오후 2시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오지현 기자

‘영광 552mm’...전남광주 집중호우 피해 속출

이틀간 주택 침수 등 신고 101건...인명 피해는 없어

보성·영광 올 첫 시행 ‘재난성호우 긴급재난문자’ 발송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에 이틀간 552mm에 달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며 도로 침수 등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다.

31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30일부터 이날 오후 1시까지 주요 지점 강수량은 영광 낙월도 552mm, 영광 안마도 261.1mm, 영광 203mm, 보성 177mm, 신안 임자도 163mm, 화순 이양 133mm, 영광 염산 130.5mm, 나주 다도 127.5mm, 화순 105mm 등이다.

시간당 최대 강수량은 보성 111.7mm, 영광 낙월도 107.5mm, 화순 이양 82mm, 영광 안마도 61.2mm, 영광 49.6mm, 화순능주 43.5mm 등이 기록됐다. 이 중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진 영광·보성에서는 올해 첫 시행한 ‘재난성호우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곳곳에서 피해 신고도 이어졌다. 오후 1시 기준 광주권역의 호우 피해 신고는 36건, 전남권역은 66건이 접수됐다.

피해 신고는 영광이 60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순천 2건, 여수·신안·해남 각 1건이

접수됐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대부분은 도로 침수·맨홀 역류 등으로 인한 안전조치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영광군 백수읍에서는 이날 오전 8시9분께 주택이 침수돼 안에 고립된 주민 2명이 소방 당국에 구조되기도 했다.

곳곳에서 담벼락, 나무, 통신주 등이 쓰러지는 피해도 발생했다. 전남 서구 매화동에서는 통신주가 쓰러져 안전조치를 진행하기도 했다.

광주기상청 관계자는 “전남광주는 비가 그친 후 대체로 흐린 가운데 대부분 소강상태를 보이겠으나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며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차량 운행 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감속 운행하는 등 교통안전과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형우 기자



31일 오전 전남광주 영광군 범성면 한 주택가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배수 작업을 하고 있다. 이날 영광에는 오전 9시 기준 344mm의 비가 내렸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소방본부 제공>

“가습기살균제 참사 15년...피해자 적극 찾아야”

광주환경운동연합, 책임기업 규탄 파켓팅

전남광주 피해 추산 6만명...신고 360명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진 지 15년을 맞아 전남광주 지역 환경단체가 책임기업의 책임 이행과 정부의 적극적인 피해자 발굴을 촉구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31일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이마트 광주점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책임기업을 규탄하고 피해자 찾기를 요구하는 파켓팅을 진행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전남 광주 지역 가습기살균제 제품 사용자는 57만4천191명, 이 가운데 건강피해자는 6만1천161명으로 추산된다.

반면 지난해 2월 말 기준 실제 피해 신고자는 360명으로, 추산 건강피해자의 0.59%에 그쳤고 신고자 가운데 104명이 숨졌으며 피해구제를 인정받은 사람은 256명으로 집계됐다.

단체는 제품이 과거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등에서 광범위하게 판매된 데다 가정뿐 아니라 병원과 학교, 군부대, 사무실 등에서도 사용돼 실제 피해 규모가 더 클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품이나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았거나 어떤 제품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기억하지 못해 신

고를 포기하는 피해자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15년이 지났지만 자신의 피해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시민들이 있다”며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피해자를 찾고 진상을 규명해야 하는 현재진행형의 참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 개인에게 입증 책임을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가 과거 판매·사용 기록을 활용하고 기존 신고자 가족에 대한 건강피해 조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찬용 기자

술자리 말다툼 끝 지인 살해...60대 영장

술을 마시던 지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흥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31일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혐의를 받는 A(60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남 오전 12시40분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문수동 한 공원 앞에서 B(50대)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인근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두 사람은 공원으로 이동했고, A씨는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B씨를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윤찬용 기자

철거 전문가

광주·전남 전지역 가능

- ✓ 철거 경력 20년!
- ✓ 광주·전남 전 지역 출장 가능
- ✓ 상가, 주택, 간판, 내부 철거 등
- ✓ 당일 견적 OK / 소규모 철거도 가능
- ✓ 안전·정리+깔끔함까지 책임집니다.

현주 제로레벨

☎ 상담전화
010.9842.5570

60플 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